

## 내일 일을 염려치 말라

마태복음 6:31-34,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올해도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일 일을 염려치 말라는 주의 교훈을 다시 기억하며 교훈을 나누기를 원한다.

### 1. 내일 일을 염려치 말라(34절)

세상에 사는 인간의 삶은 의식주의 문제로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 같다. 주 예수께서는 옛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모인 유대인 무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셨다. 의식주의 문제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 염려거리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현실은 우리로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이고 국내 투자를 줄였고 신규 취업자수는 급감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가계부채는 증가하여 약 15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고 소득 분배 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한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가 20년만에 위기라고 표현하였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언제나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잠언 6:6-11,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잠언 10:4-5,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에베소서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우리는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서 5: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에베소서 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돈도, 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내일 일을 염려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마 6:11).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경제 상황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염려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평안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그가 친히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평안 주실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살후 3:16).

##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하나님의](전통본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주권, 통치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명기 4:1-2,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5:29,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0:12-13,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신명기 6:25,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계명 순종이 의요 불순종이 죄이다.

마태복음 5:20에 보면,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를 말하며,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전심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의를 행해야 한다. 로마서 6:12-13,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 3.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 26-30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천 짜는 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시편 104:24-29,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체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

하니이다. 선척[배들]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주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처할 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필요한 것을 주셨다. 신명기 8:3-4,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기근 때에도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주신다.

시편 33:18-19,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근도 두려워말아야 한다.

시편 37:16, 18-19, 25-26,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도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살게 하신다.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열왕기상 17:1-7,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 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와 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 어려운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자. 그러나 게으르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며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입을 옷과 거처할 집을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 즉 성경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며 복습하고 그 교훈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를 주실 것이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특히 만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곳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주실 것이다. 또 비상한 때에는 비상하게 역사하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